

로댕의 ‘느린 예감’을 만든 산책의 힘

최효찬
칼럼니스트



“명성을 얻기 전 로댕은 고독했다. 그리고 나서 찾아온 명성은 아마도 그를 더 고독하게 했을 것이다. 명성이란 결국 하나의 새로운 이름 주위로 몰려드는 모든 오해의 총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쓴 ‘릴케의 로댕’이라는 책은 이렇게 시작한다. 시샘이 날 정도의 명문이다. 당시 무명작가에 불과했던 릴케가 로댕을 만난 것은 로댕의 전기 집필을 의뢰받고서다. 그 후 비서로 지내기도 하면서 릴케는 로댕의 전기를 완성했다. 릴케의 로댕 전기는 전기라기보다도 릴케의 눈으로 본 로댕의 예술론에 가깝다. 그의 개인사라든가 예술사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다보면 로댕이 예술가로서 영감과 창작 혼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은 이른 아침마다 먼 길을 돌아오는 산책과 그 산책을 하면서 느낀 ‘관조의 힘’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로댕은 ‘일이 곧 휴식’이었다. 그렇지만 단 하나의 휴식은 아침 산책이었다고 릴케는 묘사한다. “그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이른 시간의 순수함을 사랑합니다. 그는 길가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는 황홀한 표정으로 버섯 한 송이를 들어올려서, 이른 아침의 산보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온 아내에게 보여줍니다.”

산책을 하면서 길을 지나칠 때마다 로댕의 시선에는 다양한 사물들이 들어온다. 시골풍경을 만나고 밭을 가는 네 마리 소들이 천천히 끄는 육중한 움직임의 우치를 본다. 로댕은 이 느낌을, 느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 충만함을 경탄하곤 했다. 그 움직임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포착한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작업에 반영된다. 그의 작업도 육중한 마차처럼 느낌 속에서 몰두하는 것이다.

로댕은 31살에 벨기에로 가 조수로 일하는데 이때부터 그의 산책은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가 무명의 벨기에 시절에 작업에 몰두하고 기초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산책과 그 산책이 준 관조의 선물이었다고 한다. 로댕에게 무명의 벨기에 시절은 그래서 ‘관조의 시절’이 되었는데 로댕은 그때가 가장 풍요로웠다고 한다. 로댕은 무명의 시절에 산책하며 고갈되지 않은 생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릴케는 “그는 지금도 매번 강해지고 일할 의욕으로 가득

차서 먼 아침산책길로부터 돌아옵니다”며 로댕에게 산책은 예술작업을 하게 하는 힘이라고 적고 있다. “희소식을 가져온 사람처럼 행복하게 그는 자기 사물들 곁으로 가서는 어떤 아름다운 것을 갖고 오기라도 한 것처럼 사물 하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전부터 일하고 있었던 것처럼 다음 순간 곧바로 깊이 몰두하고 맙니다.” 로댕이 부단히 예술가로서 창작열을 불태울 수 있었던 비결도 산책과 산책이 준 관조의 힘이었다고 릴케는 말한다. 로댕에게 산책은 ‘다가올 작업의 준비’였고 모든 의미에서 작업을 위한 전제조건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나중에 건강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시기에 그의 건강이 지속적인 견고함을 얻은 것도 산책 덕분이었다. 즉 로댕은 이른 아침의 산책을 습관화했기에 나중에 산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체력을 유지하며 조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달리 말하면 로댕이 세기적인 예술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산책을 하면서 풍성하고 충만하게 수확한 ‘관조’ 덕분이었다. 사물에 대한 관조는 그에게 수많은 조각상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었을 터이다. 로댕의 조각이 다른 예술가들과 달리 살아 움직이는 듯한 형상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산책을 하면서 자연과 사물과 교감하고 감응한 덕분이었던 것이다. 필자는 릴케의 로댕을 읽으면서 로댕을 관찰하는 릴케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이른 아침 로댕 부부가 산책을 나서면 그 산책길을 따라가는 릴케의 모습이 말이다.

스티브 존슨이 쓴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책에서 이 제목에 대한 답은 ‘독서와 산책’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 책보다 더 좋은 것이 산책이라고 한다. 탁월한 아이디어는 ‘느린 예감’으로 얻는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생각이 아이디어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느린 예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바로 산책일 것이다. 필자 또한 글감과 같은 아이디어를 산책하며 얻곤 한다. 건강을 위해서도 산책만한 게 없다.

로댕처럼 관조의 눈을 키우고자 한다면, 이른 아침의 산책이 답이다. 굳이 이른 아침이 아니어도 좋다. 산책을 하라. 그러면 예감을 키울 수 있다!